

묵주기도는 아름답다

배 기 환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10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를 많이 바치나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묵주기도입니다.

교회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나요? 저는 사제가 되기 전에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묵주기도를 드렸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묵주기도를 자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묵주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교사 여러분도 많이 바쁘겠지만, 하루 중에 하느님을 위해 내어 드리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여러분이 묵주기도 성월인 이달에 특별히 묵주기도를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기리고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

라틴어로 묵주는 Rosarium(로사리움)입니다. 이 말은 ‘장미 발’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Rosario(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 혹은 ‘장미 화환’을 가리키고요. 그렇다면 로사리오 기도란, 장미 꽃다발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묵주 알 하나는 장미꽃 한 송이와 같고요. 교사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정성껏 봉헌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 일까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분명 많은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실 거예요.

묵주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초세기 교회의 은수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시편을 외우면서 작은 돌멩이나 곡식의 낱알을 엮어서 하나씩 굴러가며 기도의 횟수를 세었는데, 이것이 묵주기도의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5세기 말, ‘묵주기도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비오 5세에 의해서라고 하네요.

또한 1830년 이후 세계 각처에서 발현한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셨는데, 이때부터 묵주기도가 급속히 교회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2년을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면서 묵주기도에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묵주기도가 더욱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한 거랍니다. 기존의 세 가지 신비(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나 자렛 생활에 이어 공생황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덧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와 동화되는 길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환희와 고통과 영광, 그리고 빛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묵주기도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환희와 고통과 영광, 그리고 빛의 시간들의 연속이며 순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 뒤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겨낸 후에 우리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만 밝게 빛나서는 안 되며 다른 이들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묵주기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기도예요.

묵주기도는 아름답다

묵주기도는 ‘구도’와 ‘염도’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된 기도라고 해요. ‘구도’란 일정한 문장으로 정해진 기도를 말하며, ‘염도’란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묵주기도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바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만을 쫓는 다거나, 혹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계처럼 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바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주기도를 할 때에 각 단에 내재한 신비의 내용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묵주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느님께 올리는 우리의 지향을 덧붙인다면 더욱 풍성한 묵주기도가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인 10월, 교사회에서 그리고 주일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하느님께 아름다운 기도 꽃다발을 많이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



그림 · 고성진_요셉

배기환_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 신부, 2007년 서품, 현재 방배4동 보좌신부로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